

## ‘투명한 재정’이 미래다

청정도 60점 수준, 돈·권력이 원인 지적  
 각종단 인사·행정에 부패 요소... 세속화 우려

### 본사,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대상 설문

문제의 핵심은 '돈'이었다. 세월이 지체되지 않고, 종단과 사찰운영이 제대로 이립하고, 불교가 권력화·세속화되는 등 승가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모든 이유는 결국 '돈' 때문에 비롯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대불교가 창간 11주년을 맞아 출·재가 오피니언 리더 300명을 대상으로 '진정한 승가로 돌아가자' 주제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불교가 청정해지기 위해서는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조계·태고·천태·진각종 등 10여 개 종단의 총무원 부처장교 조계종 교구본부사 주지·경회의원·종단 산하 기관(단체장·신행단체장 300명(출·재가 각 15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출·재가 각 112명씩 224명이 응답했다. 설문방식은 9월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화로 진행했다.

먼저 '한국불교가 청정해지기 위한 제1요건'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종단 및 사찰재정 투명화'(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스님들의 깨끗한(김소현) 사생활'(20%) '출재가 교육 강화'(11.6%) '출가정신 회복'(9%)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70%가 각종단 인사·행정에 부정부패가 있다고 답했으며, 불교의 세속화·권력화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3%의 응답자가 우려할만한 상태(위험한 수준 15% 포함)라고 지적했다. 스님들의 소비행태에 대해서도 '풍족한 편(사치스럽다 포함)'이라는 응답이 36%나 됐다.

특히 응답자의 상당수는 설문에 응하면서 '9개의 모든 질문문항이 사실상 질문 형태만 다를 뿐 모두 '돈 문제를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을 보여, 권력화·세속화·종단 부정부패·사찰운영 등 모든 문제는 돈과 직결되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불교 승가의 청정성은 낮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은 출·재가자의 청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이 매긴 출가자와 재가자의 청정도 각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 중 6.26점과 5.86점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낮다' '영양이 없다'라는 의견과 함께 5-6점대 점수를 주었으며, 특히 일부 출가자와 대부분의 재가자들은 '돈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청정도를 낮게 평가했다.

결국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불교 승가의 '청정도'를 낮게 보고 있으며, 문제가 돈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항에 따라 출·재가의 인식 편차가 큰 부분도 있었다. 스님들의 소비행태와 관련해 '풍족한 편(사치스럽다 포함)'이라고 응답한 스님들이 28%인 반면 재가자는 56%나 됐다. 또 사찰사람(토굴 포함) 소유와 관련해 스님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32.2%)는 답을 가장 많이 한 반면, 재가자들은 '절대 안 되거나 안하는 것이 좋다'(64.4%)는 견해가 훨씬 우세했다.

투명한 사찰운영을 위한 우선 과제에서도 스님들은 '투명한 인사'를, 재가자들은 '투명한 본사'를 더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들은 "특정계층 스님과 재가자들의 모습이 전체 승가의 모습이 아니다"며 대부분의 스님들과 재가자들은 돈 문제를 포함해 권력·사치·부정부패 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실상사 화엄학원 학장 재연 스님은 "한국불교 승가가 청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정운영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라며 "이제는 그동안 회피해왔던 승가의 돈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설문분석 및 관련특집  
 9·10·11·12·13면  
 한명우·박봉영 기자



### 보라, 저 당간지주의 기상을!

청명한 가을, 천년을 넘게 한 자리를 지켜 온 당간 지주도 한 해의 농사를 거두는 계절이다. 한반도에 선불교가 들어와 구산선문이 열리는 그 활발한 시기에 흥성했던 강릉 굴산사지를 지키고 서 있는 이 당간지주는 개산조 범일국사의 우렁찬 기상을 그대로 닮아 있다. 10월 15일, 창간 11주년을 맞은 현대불교도 세월을 뛰어넘는 정론의 기상을 흠뻑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 본다. '일체중생 건성성불'의 염원을 저 당간지주에 높이 담고...

사진/강릉=고영배 기자

## 창간 11주년 특집 48면 발행

<b>선원장, 禪의 원류를 찾다</b> -고우 스님이 만난 초조 달마 스님	A5면
<b>개혁초심으로 돌아가자</b> -승가의 청정도 설문으로 알아보니	A9면
-종단	A10면
-권력화 세속화	A11면
-교육	A12면
-평등	A13면
<b>'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지상중계</b> -아제아제 바라아제, 지혜제일 사리불	A16면
<b>나의 학문과 수행-김형호 교수</b>	B2면
<b>만나고 싶었습니다</b> '일 독자기자'가 만난 광고 속의 스님	B5면
<b>현대불교와 함께 사는 불자들</b>	B7면

### 병향로 첫 발굴 경남 창녕에서

병향로(柄香爐라 불리는 '자루달린 향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굴됐다. 경남고고학연구소(소장 최종규는 2003년 7월 11일-8월 21일 경남 창녕 말흘리 유적에서 병향로를 비롯해 풍경(風磬) 19점과 금동투조 오각형장식판 21점 등 다량의 불단 장엄물을 포함, 230여점 유물을 발굴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박익순 기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참회! 새로워지는 삶'  
 정무스님 10월 12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 10대 제자 오신 광주 '빛나는 신심'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5일 개강·1천여 대중 운집

부처님 상수제자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첫 강좌가 지난 10월 5일 광주 동구 KT 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의 대한 이야기'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좌에는 지역 사암, 신행단체와 일반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연에 앞서 동구불교협회의회장 지각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치열하게 수행하며 당당하게 살았던 부처님 제자들의 삶을 통해 참 자유와 행복, 어디에도 걸림없이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빛고을 불교 아카데미에 동참한 1천여 사부대중은 지정된

좌석이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통로를 가득 메우는 열성을 보였다.

강좌를 공동주최한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은 인사말에서 "부처님 제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세상을 불교토도로 만드는 기운이 확산되도록 함께 발심하자"고 말했다.

이날 '아제 아제 바라아제-사리불'을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선 미

산 스님(중앙 승가대 교수는 지혜제일 사리불의 일화와 사상을 소개했다. 스님은 "사리불 존자는 참으로 지혜를 완성하고 그 지혜를 온전하게 행한 부처님 상수제자이다"며 "존자의 일생은 겸손과 고결, 인간적인 진솔함의 연속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삶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광주 동구불교 협의회(회장 지각)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함께 마련한 대중 불교강좌로 12월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대강당에서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관련기사 A16면  
 광주=이준엽 기자

**‘할’**

그림·조태호  
 경성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B12, B13면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함께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

# 大韓佛教曹溪宗

### 宗 正 法 傳

원로회의의장	종 산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 고
호계 원장	월 서	교 육 원 장	청 화
중앙중회의장	법 등	포 교 원 장	도 영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WWW.BUDDHISM.OR.KR